



단백질시장 1위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가보니
L1



Life

한미약품
개량·복합신약
출시 속도
L2



의류산업 순환, 책 1만권 기부 ESG에 전계열사 ‘한마음 한뜻’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세에스24홀딩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한세에스24홀딩스의 기원은 1982년 한세실업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2009년, 온라인 서점 예스24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같은 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금의 한세에스24홀딩스로 재탄생했다.
현재 의류 제조자 개발 생산(ODM)기업인 한세실업, 패션 브랜드 한세엠케이, 인터넷 서점인 예스24(YES 24), 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아출판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세에스24홀딩스가 본 불확실한 상황
한세에스24홀딩스가 정의한 불확실한 미래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다. 2000년 초 ‘패스트 패션’으로 산업군이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산업군 중에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계가 됐다.

다음은 저출생이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연간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70년 한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세에스24홀딩스는 그룹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특별 전담팀(TF)을 구축하고 기업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금 다가온 위협 속, 목표는 하나였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열사가 함께 나섰다.

◆한세실업, ESG 중 ‘환경(E, environment)’ 실천한다

가장 먼저, 글로벌 의류 ODM 기업인 한세실업은 ESG 경영 실천 방안으로 의류 산업 순환 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세실업은 지난 2022년부터 주요 해외 봉제법인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바이오 연료 사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와 미얀마 법인은 전체 에



김경 한세실업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일 2024 K-ESG 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 ESG 대상’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뉴욕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엠케이

불확실한 경제 속 지속가능성장 추구 환경오염·저출생 우려에 해결 앞장 ESG경영 실현 위해 전 계열사 동참

한세실업, 태양광 설치 등 탄소중립 한세엠케이, 직원 복지프로그램 강화 생산공정 디지털화·폐기물 감축 성과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A등급 획득

너지 사용량 중 각 23%, 57%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519톤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절감했다는 게 한세실업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한세실업은 글로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초등학교 100개교에 1만권의 책을 기부하고 있다. 서울 본사는 직원들의 개인 소장품을 사내 경매를 통해 판매한 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국내 다문화 아동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세실업은 지난달 2일 동아일보 K-ESG 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K-ESG 경영대상’ 기업부문 ‘종합 ESG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세엠케이, ESG 중 ‘사회(S, Society)’에 집중

패션 브랜드 한세엠케이는 사회 부문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5년 이상 근속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세실업 베트남 현지 공장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사원에게는 뉴욕 연수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직무 및 어학 교육비를 지원하고, 예스24 전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당일 유급 휴가와 함께 온라인 서점 예스24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가정의 날’ 제도를 통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한다. 장애 예술인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 ‘우주와 나 상상블’ 팀을 구성하고,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사내 행사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세에스24 그룹 ‘2024년 ESG 평가’… 종합 A등급 획득

한세실업과 한세엠케이의 이처럼 다양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한세에스24그룹은 지난달 28일 한국ESG기준원이 주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상장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배구조 부문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이사회 중심 경영 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가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주환원 노력을 지속한 게 주요했다는 게 한세에스24홀딩스 측 설명이다.

한세실업은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실시한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 방식과 더불어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기업적 노력이 높은 등급을 획득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한세에스24홀딩스에 따르면 자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를 바탕으로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폐기물 감축에 나선 점도 고려됐다.

한세엠케이는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B+등급을 획득했다. 실제 한세엠케이의 유아동복브랜드 ‘모이물론’은 지난해 국립공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해마다 한세에스24그룹의 다양한 활동들이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한세에스24그룹이 받은 이번 평가는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다양한 ESG 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세에스24그룹의 전계열사가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동 원정 2연전’ 흥명보호 소집되는 유럽파들, 맹활약 후 합류 /사진 뉴시스
▲헝크 오현규, 위니웅전 교체 출전…그라스호퍼 이영준은 2호 도움

▲EPL 레스터, 맨유에 3-0 ‘아쉬운 패배’…첼시·아스널은 1-1 무승부
▲손흥민 풀타임에도…토티넘, 승격팀 입스위치에 1-2 패배



▲‘황인범 시즌 2호골’ 페예노르트, 알메리에 4-1 대승
▲한국 주니어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서 금메달 7개 합작 /사진 뉴시스